



제 80 호

열린정무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소식

Gyeongangsangbuk-do Council News



council.gb.go.kr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4. 1.



민초이 섬, 독도의 일출

2014년 신년사

경상북도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경제 안정 최선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찬란한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에는 우리나라 국운이 널리 퍼지고 경북도정의 모든 분야에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러 각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이 전개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2014 갑오년은 '경상도 개도 700주년'과 동시에 '경북의 신도청 시대'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 중심에는 언제나 경상북도가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신라 화백제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 정치체제로 발전해 왔듯이, 선조들의 빛나는 '경북의 훈'을 이어받아 민의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요구와 욕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경상북도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의정목표로 삼고, 현장을 발로 뛰며 지



역경제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아울러 의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

보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주요 도정현안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희망과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경북인으로서의 열정적인 삶을 일궈 가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경북의정 발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소망이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기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 1. 1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경상북도

경상도 개도 700년 여는 새역사 창조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드넓은 초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청마(靑馬)의 기상처럼 올 해동안 역동적이고 기운찬 일들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고, 경북도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송필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수많은 도전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크나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민생현장에서 발전의 틀을 다졌고, 세계를 향한 당당한 발걸음으로 경북의 위상을 단방에 떨쳤습니다.

올해는 '경상도 개도(開道) 7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시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루하루가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으로, 도민 모두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경북의 모습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경북의 자존과 미래를 확인받는 멋진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확대 및 SOC 사업 확충, 신성장동력 구축 등 전략프로젝트의 국가 정책화를 통해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어가는 올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증대를 통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300만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한국정신의 창이었습시다. '나라의 부강은 지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방부자향(邦富自鄉)'의 신념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경상북도의회와 발맞추어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

경상도 700년의 새아침을 맞아, 가슴 벅찬 경북의 미래를 만드는 과업에 도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甲午年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 1. 1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적 미래와 인재양성의 한 해

천애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천리마처럼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경북 교육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3.0에 발맞추어 모든 행정에

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특히 교육행정이야말로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교육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 그렇게는 학생을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물로 육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 동아리활동, 주5일제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창의적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자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므로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도의회 신도시 이전의 해입니다. 경북의 정신 중 하나인 선비정신의 본향이 우리 도정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 도민들의 자긍심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새 청사에서 새 출발이 순조롭게 기원하며 도교육청 이전 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해도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경북이 되도록 의회의 큰 역할을 기대하며 경북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4. 1. 1

경 상 북 도 교 육 감

Contents

차례

지면안내

화보	1면
민족의 섬, 독도의 일출	
신년사/의정소식	2~3면
- 경상북도의회 의장·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교육감 신년사	
- 박성만·한해련 부의장 의정활동 운영방향	
특별기고/건강칼럼	4면
김용민 포스트 총장	
- 지역혁신과 발전, 대학이 앞장서야	
김광호 원장	
-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2014년 상임위원회 운영방향	5~11면
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위원회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송 필 각 기획·편집: 임현성, 남정혜
편집인: 이태암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의정활동 운영방향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절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각종 참여제도 도입, 자치제도 개선 등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로 집행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검증·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통제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부의장 박 성 만

청마의 진취적인 기상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그 동안 우리 경북도의회는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도 개도 700주년이자 신도청시대의 원년이 되는 대망의 2014년을 맞이하여 우리 경북도의회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의정활동으로 실천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는 것은 물론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부의장 한 해 련

경상북도의회, 2014년 신년교례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문화융성, 지역균형 발전 역점



경상북도의회는 1월 6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교육감, 권기선 경북경찰청장, 채원봉 농협본부장, 우영길 의정회장과 경북도내 여러 기관·단체장님과 언론인,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2014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에도 금년도 구비예산 10조원 확보로 웅도경북을 선도하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금년 갑오년은 역동하는 청마(靑馬)의 해로서 '경상도 개도 700주년'과 동시에 '경북의 신도청 시대'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해로, 이제 우리는 도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열어가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강력한 FTA 대응, 문화융성,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는 데 모든 에너지를 한데 모아 함께 손을 맞잡고 열심히 달려 나가자"라고 밝혔다.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정책연구활동 전문성 높여

경상북도의회는 1월 6일 의정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외부전문가에게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을 수여받은 대구한의대학교 임원현 교수(산림산업발전연구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의회사무처 소식

2014년 의회사무처 시무식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사무처장 이태암)는 1월 2일 2014년 첫 업무 시작으로 세미나실에서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의회사무처 시무식'을 가졌다.

Mini 민의의 전당

'다산 정약용의 창조행정' 강좌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에서는 1월 15일 김준혁 경희대 교수를 초청하여 직원들의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다산 정약용의 창조 리더십과 행정'이라는 주제로 '제11회 Mini 민의의 전당'을 가졌다.

의정만평



지역혁신과 발전, 대학이 앞장서야

김 용 민 포스텍 총장



포스텍 총장으로서 특별히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봉사이다. 이는 포스텍의 건학이념에도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와 인류에 봉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98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며 개교한 포스텍은 당시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포항같은 지방에서는 연구중심대학이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우려와 회의적 시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고 국내 정상의 이공계 대학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비결에는 당시 포스텍 설립을 결심한 박대준 설립이사장의 해안과 탁월한 리더십 아래 포스코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해외 명문대 수준 이상의 선진 교육연구시스템 구축 등을 성공리에 추진한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서울이 아닌 포항에 만든 것도 성공에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특히, 1992년 지방자치시대 부활 후 십여 년 가까이 흐른 2000년대 들어 지방분권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포스텍은 이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다. 포스텍이 경상북도, 포항시와 긴밀한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전세계 3번째 준공

예정인 건설중인 최첨단 거대과학연구시설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비롯,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기관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재단과의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설립, 최첨단 소재인 차세대 나노융합 소재부품 상용화 사업,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이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으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해 준 경북도의회와 도 관계자,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포스텍의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고용 창출 및 막대한 생산 효과를 가져와 중장기적으로 경상북도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지역의 경쟁력은 대학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며, 더불어 대학이 지역혁신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과 지역간의 21세기에 걸맞는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정립될 때 경상북도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확신 아래 포스텍이 위치한 포항지역 리더들 간의

이해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 6월에 'Advance Pohang Forum(AP포럼)'을 만들어 운영중에 있고, 출범 1주년 직후인 2013년 7월에는 11명의 주요 지역인사들과 함께 열흘 동안 미국 시애틀과 피츠버그를 방문, 벤치마킹을 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던 시애틀과 피츠버그는 쇠퇴와 침체기를 지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비결은 정부나 특정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탑-다운' 형태가 아닌 시, 지역정부, 기업체, 민간단체, 대학 등 여러 기관이 '바텀-업'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의 이익 추구를 버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장기적인 공공의 최선이익을 위해 협업하고 공유하고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방문단은 이처럼 기관별로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사회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 많은 교훈을 얻었고, 포항과 경북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상호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쥘루리 운동' 방식으로 시작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시애틀과 워싱턴대, 피츠버그와 카네기멜론대/피츠버그대의 관계처럼 산업다변화의 핵심동

력으로 작용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분야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포스텍을 비롯한 지역대학들이 잘 훈련된 인재를 배출하고 영향력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구축을 도모해 나갈 때 배출된 우수 졸업생이 지역에 남고, 외부에서 인재가 유입되며,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이 마련되는 지역발전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포스텍을 비롯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는 상호의존하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상호발전이 서로의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가는 선순환구조가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확신한다. 포스텍은 경북 지역 혁신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충실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며 건학이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경북도의회와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 🍎

건강칼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높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자주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두통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코골이나 무호흡 증상은 없는지 주위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며, 의심이 될 경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 경증의 코골이는 아침에 자고 나서 목이 아프거나 편두통, 오후에 나른한 감, 잦은 피로감 등이 주로 생긴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 등이 있어 코로 숨쉬기가 힘든 경우나 목구멍이 좁거나 편도가 커져서 목이 좁아진 경우 등으로 코골이 원인은 다양하다.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음주나 흡연 등도 잠막 부종과 변성을 유발시켜 코골이 증상을 악화시킨다.

치료를 위해서는 금주, 금연과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목안의 근육 긴장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으며, 앞서 언급한 질환들이 있는 지 전문의와 잘 상담하여 필요하면 약물 치료나 수술을 권한다.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잘 때만 착용하는 간단한 구강 장치물이 개발되어 상당수의 코골이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맥이비인후과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5-2 반월메디칼타워 13층 ☎ 053-427-7585 🍎



김 광 훈 원장
(맥이비인후과)

야간에 심한 코골이 소리 때문에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코골이 소음은 동거인의 수면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합숙소 등에서 타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본인도 잠을 설칠 수가 있다. 성인 코골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에서 보고 된다.

코골이와 별개로 수면중에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증상은 타인보다는 본인의 건강상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에 민감한 우리 몸속 필수 기관, 예를 들면 심장, 뇌 등이 일차적으로 손상 받는다.

이때문에 코골이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심근경색), 뇌졸중(중풍)의 빈도가 월등히

의회운영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당(민), 무소속(무)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새)
경주시 1

2014년 의회운영위원회 운영방향

300만 도민이 행복한 사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정립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올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 기능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조정 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014년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방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주요 아젠다」로 떠오른 ‘비정상적 정상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북도의회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에서 출발한다.

이에, 2014년 도의회운영 역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우리 경북도의회가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 및 도민제안 수렴 등 소통하는 도의회 구현을 위해 비공개 대상 외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 접근성 향상 및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감은 물론 도민의 다양



김희수 부위원장(새)
포항시 2



강영석 위원(새)
상주시 2



구자근 위원(새)
구미시 3



김말분 위원(새)
비례대표



김영식 위원(새)
경산시 1



김종천 위원(새)
영주시 1



김창숙 위원(민)
비례대표



도기욱 위원(새)
예천군 1



배수향 위원(새)
김천시 2



이태식 위원(새)
구미시 1



장영석 위원(새)
구미시 4



정영길 위원(새)
성주군 1



추재천 위원
교육의원 3



홍진규 위원(새)
군위군

한 제안·제언·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반영하는 의회상을 실현할 것이다.

둘째,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의원상 정립과 도민 신뢰회복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거시적 시각의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면서 최근 의정활동과 관련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 도의회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입법권 강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다.

넷째, 도의원 입법정책 지원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확대와 의회사무처 전문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한 입법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보좌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를 위하여 홍보 전문인력 확보 및 영상장비 등을 보강하고, 의정활동상황을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에 다양하게 제공하는 등 현장감있고 특화된 홍보를 통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으로 도민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함으로써 300만 도민이 행복한 사회, 믿음을 주는 의회상을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



제260회 임시회 기간중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현장 확인

기획경제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당(민), 무소속(무)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새)
영덕군 2



도기욱 부위원장(새)
예천군 1



김말분 위원(새)
비례대표



김봉교 위원(새)
구미시 6



김세호 위원(새)
비례대표



김영기 위원(새)
청송군



김영식 위원(새)
경산시 1



김종천 위원(새)
영주시 1



김하수 위원(무)
청도군 1



김희수 위원(새)
포항시 2



장세현 위원(새)
포항시 4

2014년 기획경제위원회 운영방향

선도하는 경북도의 창조경제 구현
서민의 얼굴에 웃음꽃 피는 경북 만들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2014년 갑오년을 맞아 금년도 위원회 운영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조례안 29건, 예산안 15건 등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6회에 걸쳐 전통시장 방문 등 42개소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위원들의 입법의욕도 왕성하여 예년에 비해 월등한 1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금년도는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약속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2년차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구기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데 따라 경상북도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선도하는 경북도의 창조경제 구현'과 '서민의 얼굴에 웃음꽃 피

는 경북 만들기'를 위하여 2014년 위원회 운영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불철주야 뛰고 연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집행부와와의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둘째, 서민복지의 최우선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한다는 목표로 경북도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 구책사업 및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 근로여건 개선 등 근로자 근무여건 향상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셋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격언처럼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책화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갑오년인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청마의 해로 청마(靑馬)는 동양에서는 생동력과 활력의 상징으로, 서양에서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을 의미하는 만큼 제9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초지일관(初志一貫)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펼 것이다."라고 각오를 다짐했다. 🍀

창조경제 선도, 서민복지 향상에 최선
현장중심, 생산적 의정활동 활성화



263회 정례회 기간중 원전사고 및 비리 방지대책에 대한 토의를 위해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현지확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당(민), 무소속(무)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새)
포항시 6



이태식 부위원장(새)
구미시 1



고우현 위원(새)
문경시 2



김창숙 위원(민)
비례대표



나현아 위원(새)
의성군 2



배한철 위원(새)
경산시 2



이경임 위원(무)
비례대표



이상용 위원(새)
영양군



황이주 위원(새)
울진군 2

2014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운영방향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2014년 의정활동 중점방향인 ‘안전한 경북,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실현’을 위해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예산안 심사, 도정 질문과 5분발언, 조례안 제·개정 등 소속 의원 전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한다는 각오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복지 및 자치행정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으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정 중점활동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층별,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각종 사업, 시책 및 정책 추진의 법적

뒷받침 역할인 조례 제·개정에 역점을 두고, 예·결산의 총괄적 검토 분석과 단위사업별로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 운용의 내실화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주요사업의 추진 과정과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 및 고충사항 등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정책적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 여건속에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도민 행복지수 향상에도 역점을 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의원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의 정립에도 힘써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의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생산적 운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집행부와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질책보다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소통과 화합으로 민생현안 해결에 각오를 다지는 등 금년을 도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각오이다. 🏠

도민이 안전한 경북, 건강한 복지실현에 의정활동 올인 전문성 높이고,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



제266회 정례회 기간중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문화환경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당(민), 무소속(무)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새)
울진군 1



배수향 부위원장(새)
김천시 2



김기홍 위원(새)
영덕군 1



김명호 위원(새)
안동시 2



박권현 위원(새)
청도군 2



박기진 위원(새)
성주군 2



박병훈 위원(새)
경주시 1



서정숙 위원(새)
비례대표



심정규 위원(새)
비례대표



이상효 위원(새)
경주시 2



장경식 위원(새)
포항시 5

2014년 문화환경위원회 운영방향

문화복지 소외·격차 해소, 청정자원
신산업·소득원 개발에 힘 모으기로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9대 후반
기 6개월을 앞두고 도민들의 문화생활 수요증가
와 친환경적 생활 욕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구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가장 잘 보존된
역사·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21세기 현
대 문화융성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으로 도민 행복시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경북은 유교와 불교 등 3대문화가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고, 전국에서 문화재 지정비율이
16.1%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전국 최
대의 임야(사유림)와 낙동강(282km) 등 성장 잠
재력이 충분한 생태자원의 보고다. 이러한 성장
잠재적 요인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휴양·힐

링서비스 제공과 고부가 신산업화, 소득원 개발
등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성공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
엑스포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문화
의 세계화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지난해 출범한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
원'을 중심으로 경북의 문화관광산업을 경북만
의 특징과 이야기를 담은 '북한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 사업인 '3대 문화권 조성
사업'이 권역별 전통문화와 연계되고 지역의 문
화관광 활성화를 한층 더 촉진시키는데 현장 확
인 및 보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5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준
비 및 백두대간 낙동정맥 에코&비즈벨트 조성

등 환경산림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
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리 강화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
제 및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 당면 현안들을
점점 확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
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찬걸 위원장은 "올해도 도민들의 민생 현안
과 고충을 해결하고, 심도있는 안전심사 등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제9대 위
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도정현장 점검과 지원, 제도개선 위한 입법활동
등으로 원활한 문화환경 도정추진에 기여



제262회 임시회 기간중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개발실태 점검

농수산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당(민), 무소속(무)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새)
예천군 2



정영길 부위원장(새)
성주군 1



강영석 위원(새)
상주시 2



곽광섭 위원(새)
고령군



권영만 위원(새)
봉화군



나기보 위원(새)
김천시 1



변우정 위원(새)
구미시 5



이정호 위원(새)
포항시 7



최학철 위원(새)
경주시 3



한창화 위원(새)
포항시 1



한혜련 위원(새)
영천시 1

2014년 농수산위원회 운영방향

농업의 미래 책임자는 경북 농어업 만들기
경북 농어업 활로 모색과 제도약 발판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 농어업 개방화 시대에 대응 “살기좋은 경북 농어촌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현장을 누비는 의정활동으로 모드를 전환했다.

정상진 위원장(예천)은 우리 농어업, 농어촌은 최근 FTA, 고령화, 탈이농 심화, 빈번한 기상재해 등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6차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등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도 동시에 형성되고 있어 경북농어업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경북 농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업무성과 분석과 농어업 생산 현장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살기좋은 경북 농어촌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함께 잘살고 신명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변화의 틀속에서 기존의 사고를 과감히 내던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라는 절박함 아래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 나갈것이며,

이를 위해 함께 잘사는 마을영농 실현, 농어촌을 살고싶고 오고싶은 공간으로 조성, 차별화된 먹거리 공급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선진축산 실현, 동해인을 돈되는 바다목장으로 조성하는 등 집행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지 벤치마킹, 다양한 농어촌현장

FTA 개방화 농어업시대,
“살기좋은 경북 농어촌 건설”에 혼신의 힘 다해

방문, 농어업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살기좋은 경북 농어촌 건설”의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상진 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어업은 다국가 간 FTA개방화 확대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리더와 농어업학자들이 농어업의 미래를 희망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 경북에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위대한 경북의 혼이 있다. 경북 농어업이 한국 농업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국가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당(민), 무소속(무)



장두옥 건설소방위원장(새)
포항시 3



홍진규 부위원장(새)
군위군



김희원 위원(무)
칠곡군 2



윤성규 위원(새)
경산시 3



윤창욱 위원(새)
구미시 2



이시하 위원(새)
문경시 1



이영식 위원(새)
안동시 1



이왕식 위원(새)
의성군 1



이용진 위원(새)
울릉군



장영석 위원(새)
구미시 4



한재석 위원(새)
상주시 1

2014년 건설소방위원회 운영방향

더 편리하고 균형있는 SOC망 구축
밝은 사회, 안전한 사회건설 밀거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경북의 '경상도 개도 700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해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 보다 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더 편리하고 균형있는 SOC망 구축, 남부권 신공항 건설, 도청이전 명품신도시 조성, 북부권·동해안권·중남부권 등 도내 권역별 맞춤형 발전 등을 올해 역점현안으로 설정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금년에는 정부의 주요 국정시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구토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로 도민 기대감을 충족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를 맞춰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구석구석 더 빨라지는 SOC망 구축과 도청이전 명품신도시 조성에 차질없는 준비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경제

대동맥의 발판이 되는 지역개발로 미래경북 기반 마련을 위해 △신실크로드 시대 대비 사통팔달 도로철도망 구축 △수요지중심의 도시개발 및 특화산업 조성 △도민 체감형 행복도시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기후변화 선제대응으로 자연재난 제로 도전 등 산적한 과제를 집행부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력하고 대안 마련 및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등을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도청이전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해 △경북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생태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명품지식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 되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주거, 교육, 편의시설

등 초기생활권 구축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정주여건에 필요한 세제혜택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권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민안전 기반구축을 위해 ‘구미 합동방재센터’와 ‘119특수구조단’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장두옥 위원장(포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장부터 꼼꼼히 챙겨 도민들의 생활속 불편사항인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비정상적인 건설분야 제도와 사업현장의 실태점검을 통하여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상도 개도 700년 신도청시대 개막
지역균형발전으로 풍요로운 도민 삶 향상



제266회 정례회 기간중 도청신청사 건립현장점검

교육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당(민), 무소속(무)



김수용 교육위원장(새)
영천시 2



구자근 부위원장(새)
구미시 3



김원석 위원
교육의원 1



박성만 위원(무)
영주시 2



박태환 위원
교육의원 5



이 달 위원(새)
경주시 4



최우섭 위원
교육의원 2



추재천 위원
교육의원 3



홍광중 위원
교육의원 4

2014년 교육위원회 운영방향

학생,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 참교육 열어가는데 선도적 역할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에서는 올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창의·인성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어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운영 방향을 설정하게 된 것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시설물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나 아직도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험한 학교시설물이 상존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망 구축미흡, 인성교육문제, 학교폭력문제, 학생인권과 교권 신장문제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역점 의정활동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 개선 △위생적인 학교

급식운영 △현장체험 학습과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1인 1운동의 생활화로 건전한 심신수련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줄어들지 않고 다양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둘째,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울림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정과 탈북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초학력 증진과 정체성 확립교육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교육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하여 꿈과 재능을 키워주고 맞춤형 학력지도를 강화하여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창의성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를 육성할 계획이다. 기숙형고교, 작은학교, 자율형고교, 거점우수중학교 육성을 통하여 수요자 지향적인 다양한 학교를 육성하여 다시 찾아오는 학교로 탈바꿈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시와 견제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안전심사 등 집행부 견제에 있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만큼 꼼꼼히 살펴 잘못된 부분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여건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최선 다할 터 현장의 목소리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제263회 제차 정례회기간중 독도사랑,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한 독도 현지확인 실시



개도 700년,
새 지평을 매는 2014!
도민과 함께 **희망**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지역과 국가발전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외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참 봉사를 실천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익신장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